

壬辰倭亂 시기 密陽出身 인물의 義兵活動과 성격

卞 光 錫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

1. 머 리 말
2. 밀양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3. 전쟁 초기의 밀양일대 전투
4. 밀양출신 인물의 지역별 의병활동과 성격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6세기에 들어선 조선사회는 왕조의 지배체제가 크게 바뀌어 가는 시기였다. 정치적으로 양반사대부 내에는 훈척과 사림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속에는 성리학이 이기철학 중심으로 발전하여 다분히 관념세계로 빠져들어 가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서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과전법이 무너진 뒤 지주제가 발달하고 조세제도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

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부의 집중이 일어나면서 하층민의 저항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관료 지배층들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부분 정쟁에 몰두하면서 사회개혁을 외면함에 따라 점차 조선사회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었다. 급기야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조선 전역에 심대한 혼란을 끼친 전란이며, 동시에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 국제전쟁이었다. 조선 땅은 왜란 중간의 강화회담으로 소강상태도 있었지만 전후로 무려 7년 동안 전쟁상태에 놓여 있었던 혼란상황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국토의 황폐화는 물론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관군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각지에서 활약한 의병의 역할이 매우 컸다. 따라서 임진왜란사에 있어서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사적으로 항상 강조되어 왔고, 현재까지 지역 의병활동의 사례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온 편이다.¹⁾ 그러나 개인 인물

1) 대표적인 경상도 남부지역 의병연구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潤坤, 「郭再祐의 義兵活動-특히 組織과 戰術·戰略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33, 1967; 李章熙, 「郭再祐研究」, 養英閣, 1983; 許善道, 「壬辰倭亂의 克服과 嶺右義兵-그 戰略的 意義를 中心으로」, 『晉州文化』 4, 진주교육대학, 1983; 李謙周, 「壬辰倭亂時의 嶺左義兵活動 一般-蔚山地方 義兵의 例」, 『蔚山工大研究論文集』 15-2, 1984; 高錫珪, 「鄭仁弘의 義兵活動과 山林基盤」, 『韓國學報』 51, 1988; 金錫禧, 「郭再祐의 起兵과 社會的 基盤」, 『忘憂堂郭再祐研究』 2, 망우당기념사업회, 1989; 朴性植, 「壬辰亂의 晉州城 戰鬪」, 태화출판사, 1991; 鄭震英, 「大笑軒 趙宗道와 存齋 郭越의 義兵活動」, 『南冥學研究』 2, 1992; 金德珍, 「濯溪 全致遠과 雪壑 李大期的 義兵活動」, 『南冥學研究』 2, 1992; 李載浩, 「慶尙右道에서의 鶴峰의 討賊救國活動-특히 官·義兵의 領導와 饑民救活의 事功에 對하여」, 『鶴峰의 學問과 救國活動』, 학봉기념사업회, 1993; 李炯錫, 『壬辰戰亂史』 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94; 金준형,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방어와 의병활동-제1차 진주성 전투 이전」, 『慶南文化研究』 17, 1995; 池承鍾, 「16세기말 晉州城戰鬪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慶南文化研究』 17, 1995;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혜안, 2001.

에 대한 기록 등 구체적인 사료를 이용하여 지역 단위로 엄밀하게 고증한 의병사 연구는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²⁾ 게다가 기존 연구는 주로 이름난 의병장을 대상으로 그 활동을 조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던 소규모의 의병세력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임란시기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밀양지역 출신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의병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³⁾

전후로 7년에 걸친 장기간의 전쟁을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동래를 거쳐 밀양·청도나, 진주·합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전투가 치열하였고 피해도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이 일본군들에게 내륙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일대였기 때문이었다.

밀양은 영남대로상의 남쪽에 놓여있는 도호부로서 비교적 일찍이 재지사족이 형성되어 지역사회를 주도해 온 대읍이었다.⁴⁾ 이곳의 양반사족층은 주로 在地地主로서 佃戶와 奴婢를 거느리며 사회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지역사회의 공론을 대표하는 지배세력으로 형성·변천해 갔다. 임진왜란 시기 밀양에서는 密陽 朴氏·密陽 孫氏

2)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崔孝軾, 『慶州府의 壬辰抗爭史』, 경주시문화원, 1993; 李有壽, 『蔚山의 壬辰丁酉倭亂史』, 『蔚山郷土史研究論叢』,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1996; 卞光錫·金康植, 『梁山의 壬辰抗爭史』, 양산문화원, 1998; 합천임란창의기념사업회, 『합천임란사』 1·2, 1994·2001; 禹仁秀, 『蔚山地域 壬亂義兵의 活動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31, 2003.

3) 임진왜란 시기에 의병활동을 전개한 인물에 대한 당대의 자료는 手筆本 내지 筆寫本 등이 있으나 현재로선 거의 볼 수 없다. 서부 경남이나 경상도 남부지역에서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孤臺日錄』(鄭慶雲)이나 『龍蛇日記』(李魯) 등이 꼽힐 정도이다. 다만 지금 전해오는 자료는 개인의 문집류 등 기록의 대부분이 가문의 후손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훨씬 후대에 나온 목판본이나 활자본과 같은 印刊本들이다. 따라서 문집류 중에는 다소 기록의 실증성 내지 객관성 측면에서 사료적 가치의 평가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최대한 객관화하여 당시의 활동상황과 그 성격을 추적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4)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79 참조.

·驪州 李氏·廣州 金氏·金寧 金氏 등을 비롯한 여러 가문이 의병을 주도 하였던 대표적인 재지 양반층이었다. 본고는 밀양지역 출신으로서 인근 군 현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지고 의병을 주도하였던 사족양반층의 사회적 기반과 의병활동의 제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2. 밀양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⁶⁾

16세기 조선사회는 지주제가 발달하면서 재지사족 지주층에 의한 토지소유가 확대되고 있었다. 지방 사족의 경제적 기반은 주로 조상 전래의 토지와 노비의 소유에 있었고, 이들은 토지의 매득·개간·증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중소지주로서의 안정된 생활을 구축해 나갔다. 이처럼 사족양반들은 지주로서 토지에 긴박된 佃戶나 奴婢를 거느리며 가계를 경영해 나갔고, 한편으론 향약이나 동(촌)계의 조직을 정비하여 하층민을 통제함으로써 고을 내에서 향촌사회를 주도하고 있었다.⁷⁾

밀양은 영남지역 남부의 중심지에 위치한 도호부로서 비교적 일찍이 재지사족층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들이 사회경제적 기반에 토대하여 고을 내의 지배권을 장악해 왔다. 8도 가운데 경상도는 田結數가 가장 많았고 농

5) 이 시기 경상도 의병활동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는 鄭震英, 「경상도 임란의병의 활동 배경과 의의」, 『임진왜란과 밀양의 의병항쟁』, 학술회의자료(2005.3.25) 참조. 이 학술회의는 鄭震英·張東杓·金康植 교수 및 필자가 함께 참가한 대회였다. 의병세력 가운데 본고의 주된 검토 대상은 밀양의 대표적 양반사족층인 密陽 朴氏·廣州 金氏·金寧 金氏 등이 될 것이다. 한편 또다른 대표적 사족층인 驪州 李氏·密陽 孫氏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조.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密陽地域의 義兵抗爭과 의의」, 『釜大史學』 28·29 합집, 2005.

6) 임란을 전후하여 밀양지역 재지사족의 존재와 동향에 대해서는 朴丙鍊, 「朝鮮朝 在地士族의 存在樣式과 行政體系上的 地位 -密陽府를 中心으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 7, 1995 및 장동표, 「임진왜란 전후 밀양 재지사족의 동향」, 『역사와 현실』 55, 2005 참조.

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출판부, 1979, 제3장 참조.

업생산성도 타도에 비하여 훨씬 높았다. 밀양지역도 그러한 농업선진 지대의 하나였다. 특히 농업기반 시설인 제언이 다른 고을보다 많은 편인데, 助也堤·興方堤 등의 제언이나 守山倉과 守山津·三浪倉과 三浪津 등의 창고·포구들은 농업이 발달하고 물화유통이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⁸⁾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 양반지주층은 자신들의 家率人力을 유지·확대해 나갔다.

임진왜란 시기에 각 지역 의병의 구성도 모병을 주도한 사족양반층의 토지소유 기반 위에서 군병의 동원이 가능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의병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이들 조직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식량문제의 해결이 관건이기 때문이었다.⁹⁾ 즉 의병세력의 물적 토대는 주로 군량·의복과 같은 衣食문제를 비롯하여 무기류 등 군수품이었으며, 특히 군량의 조달은 재지사족층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였다. 다음의 기록은 군량의 중요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략) 들으니 鄭希賢이 혼자 密陽에 있다는데 회현은 의지할만한 장수가 못되고 거느리고 있는 군사 또한 극히 적으니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들으니 회현은 밀양 등지의 군사 2백여 명을 모집하였었는데, 중간에 양식이 모자라 흩어졌다가 지금 또 양식 수십 石을 얻었으므로 흩어진 군졸이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면 군사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¹⁰⁾

이처럼 의병세력을 유지하고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조달이

8) 『密陽府邑誌』(1832년) 堤堰, 倉庫.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주도한 밀양사족들의 토지의 소유규모나 농업생산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어 상세한 실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9) 주로 의병장들이 자신의 佃戶나 家僮을 동원하고 식량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상우도의 경우 임란의병을 주도한 재지사족들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金康植, 앞의 책, 2001, 110~116쪽 참조.
 10) 『宣祖實錄』 권55, 선조 27년 9월 己丑.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창의할 때 유생양반층은 초기에는 거주지 중심으로 고을 내에서 기병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의병세력이 주로 지역 내의 생활기반을 가진 양반층의 家率人力 내지 고을 내 소농민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로 의병활동이 戰勢에 따라 변화되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의병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각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보입수 등을 위해 인근 제지역과의 연결관계가 긴밀히 필요하였다. 그런 점에서 의병장들의 학문적 문도관계와 혈연적·지연적 유대관계가 의병세력을 조직·확대하는데 크게 작용하였고, 이로써 각 지역 의병장들 간의 연대 하에 의병활동이 더 확대되기도 하였다.

경상우도의 경우, 성리학문의 중심에 있었던 南冥 曹植의 문하에 의병장이 많이 배출되었다. 경상도 내륙에서 크게 활약하였던 金沔·鄭仁弘·郭再祐 등은 그의 문하에 동문수학했으며, 招諭使 金誠一의 종사관 李魯·趙宗道도 동문이었다고 한다.¹¹⁾

한편 의병장의 신분은 대부분 양반층이었다. 양반신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서열에 속하는 자와, 상민으로서 의병장이 된 경우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극소수 있었다. 의병장 중에는 관직자와 無官職者로 나눌 수 있는데, 관직자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의병을 조직한 자는 극히 소수이고 대다수는 관직을 경력한 사람이었으며, 그것도 무관직에 종사한 사람보다 문관직에 있었던 자가 훨씬 많은 편이었다. 또한 관직을 거치지 않은 의병장들 중에서도 進士나 生員 또는 儒生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武士보다 훨씬 그 수가 많았다.¹²⁾ 의병장 휘하에 있던 都摠·收兵將·先鋒將 등의 참모진들도 절대 다수가 유생이었다.

그 이유는 대개 의병장들이 유학 지식인이자 덕망이 있어서 義를 숭상하는 유생들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

11) 金康植, 앞의 책, 2001 참조.

12) 李章熙,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 국사편찬위원회, 151쪽.

다. 그런 점에서 의병장과 참모진 배출의 지역사회적 기반은 유학 학문의 문도관계나 지연적 유대관계가 크게 작용하였다.

원래 이들 양반사족은 다양한 향촌지배기구를 통하여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유향소나 향사당의 건립과 운영, 향약의 시행, 鄉案의 작성과 중수, 향교와 서원의 건립 등을 행함으로써 鄉權을 수호하려 하였다. 유향소의 경우 밀양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미 백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¹³⁾ 또한 향약도 밀양에서는 왜란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전란 후에도 향안의 중수 노력과 함께 향약의 재실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¹⁴⁾ 여기서 나아가 서원과 같은 향촌지배기구 등을 마련하여 향권결속의 힘을 한층 다져 나갔다. 서원의 경우 16세기에 들어와 사림세력이 점차 정치세력화 되는 가운데 재지사족들의 향촌지배기구로서 설립되었다.

밀양의 재지사족들에 의해서도 일찍이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바로 영남 유림의 종장 金宗直을 사숙하는 교육기구인 禮林書院이 그것이었다.¹⁵⁾ 이들 서원을 비롯해 재지사족들은 향촌지배기구의 하나이면서 사족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제의기구로서 고을 내에 사직단과 성황단의 건립이나 정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것은 향촌지배기구의 정비를 통하여 향권을 주도해 가려는 방편이었다.

이렇게 재지사족들은 지역의 향권과 풍속을 주도해 왔으며, 고을 내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향안을 작성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밀양에서 창의했다가 정유재란기에 곽재우 진영에 합세하여 활약한 의병장 朴壽春이나 安訊 등은 전란 후 밀양지역의 향안 중수를 통해 향촌사회의 정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었다.¹⁶⁾

13) 佔畢齋 金宗直이 지은 「密陽鄉社義財記」에 향사당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佔畢齋文集』 권2. 장동표, 앞의 논문, 245쪽 참조.

14) 『密州舊誌』, 鄉社堂, 「鄉社堂在西門外 壬辰亂蕩盡 萬曆癸丑重創五間于衙舍西南 座首一員 別監三員 鄉憲及鄉約冊 鄉約天啓癸亥府使邊瀾所設」.

15) 『禮林書院誌』 상권, 「書院의 沿革」; 장동표, 앞의 논문, 247-8쪽, 2005.

3. 전쟁 초기의 밀양일대 전투

1592년 4월 14일 일본군의 1번대 主將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僚將 소오 요시토시(宗義智) 등 약 2만의 주력군이 부산진 첨사영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개시되었다.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나서 이튿날 동래성이 함락되었다.¹⁷⁾ 그러나 동래의 국방 관문인 경상좌수영은 좌수사 朴湏이 군영을 포기하고 언양으로 도주함으로써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잇달아 함락되었다. 또 울산에 소재한 경상좌병영의 좌병사 李珪도 도주하였다.¹⁸⁾ 이같은 언양으로 도주했다가 박홍을 만났으나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고 다시 경주로 퇴각하였다. 한편 경상우수사 元均은 일본군이 거제도도 향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우후로 하여금 우수영을 방어케 했으나 그 또한 전선과 화포를 침몰시키고는 도주함으로써, 결국 대일 관문인 경상도 좌·우수영의 수군과 경상좌병영은 자체로 무너지고 말았다.¹⁹⁾

일본군은 선발대에 이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2번대가 부산에 상륙하고, 쿠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의 3번대가 다대포진영을 거쳐 낙동강으로 김해에 상륙한 뒤, 이어 양산과 밀양 방면으로 공격해 왔다.²⁰⁾ 양산·밀양 지방은 부산포에서 중부 내륙지역으로 북상 공략하는데 직접적인 통과지점이었기 때문에 초기엔 일본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한편으론 침략에 맞서는 항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일대는 지역적으로 경상좌도에 인접해 있으므로, 전쟁 발발 직후에 일본군의 지속적·직접적인 공격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우도에 비해 군

16) 朴壽春, 『菊潭集』 권2, 鄉案重修序; 『密州徵信錄』 권6, 文選.

17) 『宣祖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壬寅.

18)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5월 庚申.

19)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임진전란사』 및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 참조.

20) 李炯錫, 『壬辰戰亂史』 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94.

사적으로 대응할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국방의 대비방식이 鎭管 편성에서 制勝方略으로 바뀌었던 데에도 한 이유가 있었다. 선초 이래 지방의 군제였던 진관체제는 관찰사·병사·수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민이 고을을 각자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군역의 代立 현상이 대두하여 納布制가 전개되면서 민중의 부담이 가중되자 진관체제는 계승방략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남쪽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도내의 여러 고을을 巡邊使·防禦使·助防將·都元帥 및 본도의 병사와 수사에게 나누어 소속시키고, 변방의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京將을 선임·파견하여 전란을 수습하도록 하는 응급적인 分軍法 방식이었다.²¹⁾

즉 계승방략은 전란이 발생했을 때 지방의 군사를 특정 지역에 모으고 京將을 기다리는 응급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왜란의 전면전쟁에서는 제1선이 무너질 경우 후방 지역의 신속한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정적 한계 때문에 전쟁 초기에 패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²²⁾ 이렇게 되자 평소 군사권을 겸임하고 있던 각도의 관찰사나 군현의 수령들은 유사시의 작전지휘권이 중앙에서 파견되어온 장수에게 이관되어 군사권 행사가 위축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부터 편성되어 온 육군과 수군의 진관체제에 따르면 당시 밀양은 慶尙左兵使·虞候의 지휘계통 중에서 大丘鎭管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좌병사의 지휘를 받는 경상좌도에는 경주·안동·대구, 우병사의 지휘를 받는 경상우도에는 상주·진주·김해의 각각 세 관할 진관이 편성되어 있었다. 또 이러한 지휘계통에는 僉節制使·同僉節制使·節制都尉 등의 순서로 府郡縣을 맡은 무관직이 임명되었다.²³⁾

관방체제상 밀양이 지니는 지역적 입지의 중요성은 일본군의 진격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은 부산포를 통해 침략한 이후 한양을 향한 내륙점

21) 『宣祖修正實錄』 권25, 선조 24년 10월 癸巳.

22) 李謙周, 「壬辰倭亂前 朝鮮의 國防實態」, 『韓國史論』 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23)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296~302쪽.

령 형태는 一路巨鎭이었다. 그것은 크게 세갈래의 點線式 직선공략을 펴면서 요소마다 巨鎭을 두어 병력을 주둔시키는 방식이었다. 경상도 동남부 해안권의 주요 지역(부산과 인근의 왜성 분포지역)에는 일본군이 본국과의 연락과 병력의 동원 및 인적·물적 조달을 위해 그들의 후방기지를 강화해 두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 이들 지역과 여기에 가까운 인근 내륙에서의 일본군에 대한 방어전투가 쉽지는 않았다. 그것은 모두 후방지로서 일본군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밀양과 양산은 일본군이 내륙진출을 위한 허리와 등으로 삼았다는 표현은 이를 잘 말해준다.²⁴⁾

전쟁을 도발한 일본군은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키고서 초기에 조선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진로를 크게 中路·左路·右路의 3개 노선으로 나누어 한양을 향하여 북상하였다. 그 진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1로(中路): 東萊-梁山-密陽-淸道-大邱-仁同-善山-尙州-鳥嶺-忠州-驪州-楊根-龍津-漢陽
- ② 제2로(左路): 東萊-機張-蔚山·彥陽-慶州-永川-新寧-軍威-龍宮-鳥嶺-忠州-竹山-龍仁-漢陽
- ③ 제3로(右路): 東萊-金海-星州-茂溪-知禮-金山-秋風嶺-永同-淸州-漢陽²⁵⁾

이로 보아 진관체제 하에서의 방어입지와 일본군의 공격경로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세 갈래 중에서 밀양지역은 中路에 해당하였다. 동래에서 양산·밀양·대구·상주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경로였다.

여기서 전쟁발발 직후 밀양으로 진입하는 전투의 개황을 보자. 부산을 거쳐 양산읍성을 습격한 일본군의 주력군 1번대는 魚嶺과 鵲院關을 넘어 밀양으로 진격하였다.²⁶⁾ 당시 어령과 작원관은 양산에서 밀양으로 향하는

24) 『宣祖實錄』 권42, 선조 26년 9월 癸丑.

25)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5월 庚申.

26) 일본군 2번대는 언양-경주방면으로 북진하였다. 李炯錫, 『壬辰戰亂史』 상권, 235쪽, 임

요로였다. 특히 작원관은 밀양의 관문으로 상당한 험로였다. 먼저 4월 16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의 부장인 사고 나이젠(佐護內膳) 등이 양산성을 정찰하였다. 다음 날 고니시의 부장인 고니시 토노모노스케(小西主殿助)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동래성에서 북상하여 사고 등과 같이 양산성을 점령하였다. 이 중에 선발부대가 작원관 입구에 진출하여 밀양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당시 경상감사 金睟가 남부 각 군현의 수령들에게 군사를 동원하여 밀양성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지휘체계가 해이하여 대부분 병사·수사들의 병력 동원이 주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밀양부사 朴晉이 휘하 병사를 동원하여 동래성에 지원 갔다가 실패하고 밀양부에 돌아와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8일 밀양의 관문으로 불과 40리 거리에 위치한 작원관과 인근 험로인 黃山棧道 등에서 전력 방어했으나 열악한 병력과 무기로 인해 바로 공략당하였고, 다음날 밀양성에서도 조선군의 체계적인 방어가 전혀 없이 점령당하고 말았다.²⁷⁾

이 때 경상감사 김수는 관군의 모집과 동원을 방기하고 靈山·草溪 일대로 후퇴하여 피난격문을 발통하는 데만 그쳤고, 이에 일본군은 큰 저항 없이 경상도 내륙으로 본격 진출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박진부사는 밀양성을 비록 방어해 내지는 못했으나 작원관 전투에서 적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 전투의 경력과 비상시 방어능력을 인정받아 뒤에 경상좌병사로 제수되었다.²⁸⁾

전쟁이 일어난 그 해 10월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이 경상도의 경우 左道 10개 고을, 右道 12개 고을이었다고 한다. 일본군은 병력과 물자운송을 위해 한 지역에 주둔시킨 병력이 적으면 수백 명에 불과하고 많아도 1천 명 정도였다. 당시 밀양에는 1,5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으

진전관사간행위원회, 1994.

27)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庚寅; 『宣祖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壬寅.

28)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5월 庚申; 『密陽府邑誌』(1832년) 宦蹟.

며, 유독 固城의 경우 수군의 기지였던 이유인지 수천 명이라고 하였다.²⁹⁾ 전쟁 초기 밀양 읍내의 전투에서도 관군이 일방적으로 패퇴하였다. 그 피해의 규모로 속오군병이 무려 8천여 명이나 전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³⁰⁾

임란 당시 밀양 일원의 주요 전적지로는 鶴院關(儉世里), 廣灘(林川里), 臺巖(山內 龍田里), 石洞(院西里), 陳邑村(豐角), 枝洞(豐角)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작원관은 검세리 낙동강변에 있으며 이전부터 驛院으로서 교통의 관문이었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밀양부사 朴晉이 군병을 동원하여 방어하다가 돌연 기습을 받아 패퇴했던 장소였다. 광탄도 박진부사의 군병들이 물길에 익숙하지 못해 무모하게 건너다 태반이 익사한 곳이라 하였다. 작원관과 광탄 일원은 전투 초기에 패퇴한 지역이었음에 비해, 대암이나 석동 일원은 초기에 기병한 지역이었다.

대암은 산내면 용전리에 위치한 바위벼랑인데 밀양부민들이 병사를 모취했던 곳으로, 석동에서 의병을 창기하여 이곳에서 진입하는 적군의 진로를 차단하였다. 석동은 작원관과 광탄에서 패한 박진부사가 병사를 이끌고 주둔한 곳이며, 孫起陽·李慶承³¹⁾이 바로 여기서 창의하였다.

한편 진읍촌은 풍각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밀양의 깊숙한 근거지였으며, 부사 李邦佐·朴慶新·李英이 일부 관군을 거느리고 여기서 주둔하였다. 지동 또한 풍각에 있었는데 정유재란 때에 李英이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한 바 있었다.³²⁾

29) 『亂中雜錄』 2, 임진년 10월 10일. 『大東野乘』 권26.

30) 『密州舊誌』 軍器廳, 「束伍軍八千餘名 壬辰蕩盡」. 참고로 속오군의 명칭이 통일되어 나타나는 시기가 1597년(선조 30) 경이므로(『宣祖實錄』 권94, 선조 30년 11월 癸卯; 『韓國軍制史』 근세조선후기편, 31쪽), 여기서의 '속오군 8천여 명'은 전쟁 후기에 편제된 양친 혼속의 정식 속오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병을 통칭하여 부른 것 같다.

31) 이들 가문의 기병과 활동에 대해서는 金康植, 앞의 논문, 2005 참조.

32) 『密州徵信錄』 권1, 戰蹟地. 그 외에 밀양에 소재하는 산성이나 요지로서 德大山城(星萬里), 推火山城(枝洞里), 兵區(禮林里), 草田(華封里), 龍山(國農沼) 등이 있었는데, 이 곳들은 모두 신라·고려시대의 성곽이나 障地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임란의병의 전적지로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4. 밀양출신 인물의 지역별 의병활동과 성격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몇 개월 동안 관군은 조직력과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의병세력은 왜란 초기부터 기강이 해이해진 관군을 대신하거나 관군진영과 합세하면서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일부 의병장들은 조정으로부터 관직제수의 논상을 받거나 관군에 비해 우대를 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다.³³⁾ 이처럼 전쟁 초기에 남도의 수령들이 대개 도망하고 진영도 정비되지 않은 채 관군들이 패퇴를 거듭할 때, 의병들이 지역을 방어하여 전쟁의 국면을 만회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었다. 의병활동도 전쟁 후기 단계(정유재란 시기)에 들어오면 忘憂堂 郭再祐 장군의 병력처럼 의병세력이 관군으로 흡수·편제되어 광범한 조직을 갖추는 등 의병의 위상이 변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임진왜란 동안 각 지역 의병의 조직은 대체로 유생들의 창의와 민중들의 자각에 의한 동참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쟁 초기 관군의 미비한 조직과 이탈의 상황 속에서 일본군의 주력부대는 내륙으로 북진하고 각지에 일부 잔류병력이 주둔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의병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주효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밀양 출신 인물로서 경상도 일원에서 전개한 의병 활동상과 의병주체 세력들의 역할을 주요 지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⁴⁾

33) 『宣祖實錄』 권30, 선조 25년 9월 戊寅.

34) 이하에서 기술하는 해당 지역에서의 의병장의 활동이 반드시 그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것은 아니고 인접한 다른 지역에서도 활약했으나, 다만 주된 활동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서술의 편의상 구분한 것임을 밝혀둔다.

(1) 전쟁의 발발과 동래지역

동래지역은 일본군이 최초로 침략한 부산진 첨사영에 이어 바로 다음날 도발하여 읍성이 점령당한 곳이었다. 따라서 대일국방의 관문인 부산·동래의 함락은 전쟁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조선의 상황에서 전란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예견한 것이었다.

일본군이 동래를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양산군수 趙英圭는 즉시 병력을 조직하여 동래로 옮겨 방어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의 군사방어 체제가 계승방략이었기 때문에 변방의 전란에 해당 지역 방어를 위해 인근 지역의 군대를 동원하여 집중 방어하려는 것이었으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어 양산에서도 체계적으로 군사를 동원하지 못하였고, 밀양부사 朴晉 영술 하의 일부 지원군도 늦게 도착하여 쉽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동래향교의 교수였던 盧蓋邦은 유학이념의 상징인 향교의 공자 위패를 수호하기 위해 밀양 무안면에 소재한 집에 부모를 찾아뵙고 있다가 전쟁의 급보를 듣고 동래에 가서 동래부사 송상현과 함께 순절하였다. 그는 후에 都承旨에 추증되었고 정충사와 충효사에 배향되었다.³⁵⁾ 동래향교의 훈도였던 밀양출신 梁潮漢도 동래성 전투에서 함께 순절하였다.³⁶⁾ 동래성 전투는 전쟁개시 단계에 일본군의 대규모 급습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방어할 병력이 전혀 없는 관군의 일방적 패배였고, 이후로도 지역민이 의병활동을 전개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다.

35) 『盧蓋邦 登第以家貧親老乞 爲東萊教授 壬亂馳赴東萊 奉聖廟位板 入城中 與府使宋象賢同死 宣廟朝 贈都承旨 入享東萊旌忠祠 又入享本府忠孝祠』, 『密陽鄉憲』 인물편; 『密陽府邑誌』(1832년) 인물조. 노계방(1563~1592; 字는 維翰)은 현재 동래 충렬사에서 배향되고 있다.

36) 『尤庵集』 권16, 東萊南門碑銘.

(2) 밀양·청도지역

밀양에서는 양산을 거쳐 공격해 오는 일본군의 제1대를 맞아 대항하였다. 당시 부사 朴晉³⁷⁾은 동래·양산의 위급한 상황을 듣고 본부의 能射槍軍 세 부대와 함께 남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갔다.³⁸⁾ 이것은 당시 제승방략 분군법에 따라 대응한 조치였다. 그러나 동래와 양산이 무너지자 밀양으로 후퇴하여 재차 지역방어를 준비하였다.

양산의 읍치를 점령한 일본군은 아군의 배후를 막고 밀양으로 진격하는 부대와 합류하기 위해 花濟嶺을 넘어왔다. 이어 박진부사는 일본군이 낙동강 수로로 엄습해 올 것에 대비하여 삼랑진 부근에 다시 방어선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 지역에 바로 밀양의 관문이자 영남의 제1요충지인 鶴院關이 있었다. 밀양이 함락되면 영남 내륙이 위험하기 때문에 읍치를 보전하기 위해 그 입구인 작원관을 방어하려는 목적이었다.

밀양부사 박진은 手兵 300여 명을 인솔하여 밀양부로 돌아온 뒤 읍치의 입구를 지키기 위해 흩어진 군사들을 다시 규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민인들의 호응이 부족하였고 전투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적군이 당도하였다. 박진부사의 군관과 병사들이 黃山棧道가 있는 작원관까지 미처 장악하지 못한 사이에 병사들은 많이 패주하였다.³⁹⁾ 박진부사는 전력을 다해 적군을 數級이나 베고도 군관 李大樹·金孝友가 전사하는 등 전투가 격렬해 질수록 상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였다.⁴⁰⁾

37) 박진(1560~1598; 자는 明甫, 밀양인). 別薦으로 宣傳官에 임명되었고, 158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訓練副正·밀양부사를 지냈다. 임진년에 경상좌병사에 발탁되었으며, 또 副總官·경상우병사·전라병사·황해병사가 되었고, 벼슬이 병조참판까지 이르렀다. 左贊成의 증직을 받았고, 시호는 毅烈公이다.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 고사본말, 壬辰諸將. 박진부사는 관직자로서 관군을 이끌고 항쟁하다가 패배했지만, 밀양·청도지역 의병의 조직과 항쟁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므로 본고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38) 『亂中雜錄』 1, 임진년 6월 19일. 『大東野乘』 권26.

39) 李炯錫, 『壬辰戰亂史』 상권, 250쪽,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박진부사가 작원 계곡의 江棧을 방어하기 위해 筒箭을 연발하여 일본군을 제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진격을 못하게 했지만, 적군은 예측하지 못했던 험한 산세를 타고 우회하여 작원관 후방으로 침입하였다. 수비하던 아군 병사들이 모두 흩어지자 박진부사는 밀양부의 읍성으로 돌아와 병기고와 창고를 불사르고 숨는 이른바 청야전술을 폈다.⁴¹⁾ 곧 성의 주위에는 일본군이 가득 포위하고 있었고, 박진부사와 군사들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게 되자 그의 명성이 원근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⁴²⁾ 박진부사는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적의 정세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근 지역과의 연대 하에 다음 전투를 대비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작원관 전투는 밀양의 관문을 수호하지 못하고 비록 패퇴하였지만, 박진부사가 겨우 3백여 명의 군사와 약간의 경상우도 지원군에다가 지역민의 지원을 업고 수행하여 일단 일본군의 공격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⁴³⁾ 작원관에서의 치열한 접전 끝에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그 전투의 공로로 박진부사는 慶尙左兵使로 승진 제수되었다.⁴⁴⁾ 그에 대한 加資는 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 4월이었다.⁴⁵⁾ 박진이 경상좌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을 때 지휘하던 조선군의 수가

40) 『東國戰亂史』, 朝鮮紀 倭亂部, 「朴晉 自梁山遮守黃山棧道 賊將乘銀轎張銀傘而進 晉力戰斬數級 軍官李大樹金孝友 中丸而死 賊踰嶺 截其歸路 晉馳還本府 焚倉庫 突圍而走」.

41)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4월 庚寅, 「賊入密陽境 府使朴晉 守鵲院江棧 棧道狹 晉發筒箭拒射 賊連日不得進 既而賊傍陷梁山郡 遠出其後 守兵 望之皆散 晉 馳還府城 焚兵庫倉穀而遁」.

42) 『亂中雜錄』 1, 임진년 4월 17일. 『大東野乘』 권26.

43) 그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편으로 적의 정세를 조정에 급히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를 신속히 수습하였으니, 이 때 조정에서 적군의 정세를 탐지한 것은 오직 박진의 보고가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듯이 그의 정보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연려실기술』 권17, 선조조 고사본말, 壬辰諸將.

44)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 25년 5월 庚申, 『慶尙道邑誌』(1832) 密陽府 宦蹟條, 「辛卯十月來 壬辰遭倭變 以鵲院戰功 陞拜左兵使」.

45) 『宣祖實錄』 권37, 선조 26년 4월 12일 丙申.

「상(上)이 정청(政廳)에 분부하였다. “박진(朴晉)은 국사(國事)에 자신을 잊고 부지런히

25,000명(주둔지는 울산)이었다고 한다.⁴⁶⁾

그 직후 밀양지역의 사족양반이 창의를 주도하기 시작하여 의병활동이 점차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갔다. 孫起陽, 朴壽春, 安國步, 曹以復, 朴宗閱, 孫纘先, 金太虛 등이 주도한 밀양의 의병항쟁 사실에 대한 魚有龜의 찬술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⁷⁾

청도지역은 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다수 병력을 주둔시킨 대구를 위협하는데 중요한 거점이었다. 따라서 청도지역에서는 의병운동이 활발하였는데 대구지역의 의병세력들이 민병을 모집하거나 식량을 갖추어 청도의 의병기지에 지원하기도 하였다.⁴⁸⁾ 청도의 의병을 주도한 세력은 梯友堂 朴慶傳·助戰將 朴慶新 등 밀성 박씨 문중의 14의사였다. 특히 박경전은 曠재우·權應銖 등과의 연대를 가지고 정유재란 때의 치열한 화양산성 전투와 울산왜성 전투에 참전한 바 있었다.⁴⁹⁾

의병항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략·전술을 세우고 또는 수정하며 전의를 다지는 결집대회가 있었다. 울산의 鷗江會盟·대구의 八公山會盟·경주의 汶川會盟·창녕의 火旺山城同苦 등이 그것이었다.

애졌으니 특별히 한 자금을 가자(加資)해 주고, 승장(僧將) 유정(惟政)은 여러번 전공을 세웠으니 당상관으로 올려주라.”

46) 당시 명나라의 袁主事에게 보고한 조선군의 수(각도의 절도사, 방어사, 순찰사 및 일부 의병수 등을 제시한 도표)를 참조. 張學根, 「壬辰倭亂期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 (국사편찬위원회, 1992)의 註 60) 참조.

47) 「威院府院君 魚公有龜는 밀양의 모든 의거 사실을 듣고 말하기를, 밀양의 임란 창의가 이찌 그리도 많고 장한가. 朴壽春, 孫起陽, 安國步, 曹以福(復), 朴宗閱, 孫纘先, 金太虛 등 모든 공들은 다 干城의 재질로써 난리 전부터 세상 사람들의 일컬음을 보았으니 어지러움에 미쳐서 쓰임이 마땅하다.」, 『漁樵窩兩世三綱錄』 권1, 附錄 諸公贊述. 밀양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장 가운데 李慶弘으로 대표되는 여주 이씨 가문, 孫起陽으로 대표되는 밀성 손씨 가문 등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金康植, 앞의 논문, 2005 참조.

48) 대구지역의 최초의 의병장이라 할 수 있는 徐思遠의 경우, 1592년 7월 招集鄉兵文을 지어 의병을 모집·창의하는 한편으로, 쌀·콩 300斛을 募得하여 이것을 청도의 禮山城에 군량을 보조해 준 적이 있었다. 『壬辰嶺南義兵史』 2001, 93쪽.

49) 이에 대해서는 『國譯增補 梯友堂集』의 「信義時盟約文」, 「信義時檄文」; 『國譯十四義士錄』 권2, 梯友堂文集 참조.

일본군이 울산으로 진격할 때, 좌병사 李珪과 군수 李彦誠이 성을 버리고 도주하자 고을민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에 김태허는 대구 팔공산에서 의병을 모집, 동지들과 함께 창의하였다.⁵⁰⁾ 팔공산에 결집하여 맹세하는 날 여러 의병장들과 함께 지은 이른바 會盟詩가 여러 자료의 유실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남아 있다.⁵¹⁾ 또한 양무공은 손기양과 함께 1·2차 팔공산 회맹에 모두 참여하였으며,⁵²⁾ 김유부⁵³⁾ 등의 밀양출신 의병장을 비롯하여 尹弘鳴·徐仁忠·朴鳳壽 등의 울산출신 의병장과 함께 울산의 구강회맹도 주도하였다.

(3) 의령·창녕·진주지역

1) 전쟁 초기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동래성을 함락한 직후 양산·김해로 들어와 서북방향으로 진격하여 함안·의령·창녕·영산 일대에서 분산하여 낙동강과 남강을 건너 경상우도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낙동강의 수로를 장악해야 하였다. 전략상 낙동강은 내륙을 향한 군수물자 보급로로서의 기능이 매우 컸다.

일본군으로서는 경상우도를 점령한 후 곡창지역의 배후인 호남지방 내륙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진격 예정로는 의령의 鼎巖津에서 남강을 건너

50) 양무공이 동지 孫讚先·孫起陽·李雲龍 등과 함께 소반의 피를 마시며 창의를 맹세했다는 八公山會盟에 대한 기록이다. 『양무공유사』 31~32쪽. 『廣州金氏史鑑』 138쪽. 이 외에도 柳汀의 『松壕日記』, 李彦春의 『東溪實紀』, 尹弘鳴의 『花巖實紀』 등이 있다.

51) 원문은 『廣州金氏史鑑』 遺詩篇, 「公山會盟日與諸義士共賦」 참조.

52) 그의 성품과 형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風彩嚴毅 器度平和 位至二品 而人無忌克 祿食累闕 而家若寒素」, 『密陽鄉憲』 附州誌人物篇.

53) 『鷗江同苦錄 八公山同義錄 火旺山同義錄 年月日并缺 密陽 朴壽春 曹以復 孫起陽 金有富 金太虛 朴宗閔 孫處約 孫諶約』, 『漁樵窩兩世三綱錄』 권1, 壬亂信義錄. 밀양·경주·영천 등의 순서로 각 지역마다 회맹에 참여한 의병장의 명단이 나온다.

합천·거창을 지나 육십령을 넘어 전라도로 향하는 방향이었다. 의령의 정암진과 남강과 낙동강이 교차하는 의령의 岐江 일대는 내륙으로 통하는 수륙교통의 요지이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⁵⁴⁾ 이처럼 요해처인 정암진 지역을 忘憂堂 郭再祐는 1592년 4월 22일경 최초로 기병하여 적군의 진출을 방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용사의 召募가 어려운 실정이었다.⁵⁵⁾

의령·창녕·진주 지역의 주요 의병활동은 곽재우가 창의한 의병운동과 1차 진주성 전투를 들 수 있다.⁵⁶⁾ 특히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의 승리도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의병활동이 큰 지원이 되었다. 일본군은 부산·동래·김해 등지의 주둔군이 합세한 약 2~3만의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은 진주성과 곤양현의 관군병력에다가 합천·삼가·초계·의령지역과 전라좌우도의 의병세력이 외곽 지원군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⁵⁷⁾ 즉 승전의 직접적 요인은 경상우도 관군과 의병이 연합전을 수행하면서 의병이 적극적으로 외곽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진주성 전투에는 밀양출신 曹慶亨이 합세하여 활약하다가 전사하였다.⁵⁸⁾

그리고 의령지역 의병전투의 실질적 효과는 곽재우의 신속한 의병조직의 토대 위에 지리적 감각을 잘 활용한 전술활동에 있었다. 曹繼祥은 곽재우 진영에 들어가 의령의 朴津전투와 鼎巖陣地에서 전공을 세우는데 기여하였다.⁵⁹⁾ 이러한 초기 의병활동은 낙동강을 왕래하는 일본군의 군량·무기 등

54) 『輿地圖書』 下, 宜寧縣 山川條 卞光錫, 「18·19세기 경상도 남부지역의 상품유통구조」, 『지역과 역사』 5, 1999.

55) 金康植, 앞의 책, 138쪽.

56) 『壬辰嶺南義兵史』(壬亂護國嶺南忠義壇保存會, 2001) 제2장 제1절 참조.

57) 池承鍾, 「16세기말 晉州城戰鬪의 배경과 전투상황에 관한 연구」, 『慶南文化研究』 17, 1995, 203쪽; 金康植, 앞의 책, 167~171쪽.

58) 당시 그는 鎭海縣丞으로 병력을 이끌고 참전했다가 전사하였다. 『燃藜室記述』 권16, 宣祖朝 故事本末. 후에 兵曹參議에 추증되었고 忠愍祠에 배향되었다. 『密陽郡誌』 節義條.

59) 조계상(1554~1638; 號는 靜觀堂, 昌寧人)은 후진들을 위한 강학장소인 정관당 재실을 세웠고 관동에 冠谷齋라는 재각이 있다. 『미리벌의 얼』 94~95쪽. 곽재우 장군 막하에서

의 물자수송 선박을 차단하는데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다.

2) 정유재란기

1597년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곽재우는 경상좌도 방어사로서 현풍의 석문산성에 수보해 있으면서 이후로 관군화되었다. 관군으로 흡수·편제되면서 더욱 광범위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淸野入堡策을 시행하기 위해 1597년 7월에 창녕의 화왕산에 입성하여 火旺山城을 고수하였다. 8월에는 가토 기요마사의 군사와 대결하였고 화왕산성을 끝까지 지켰다. 정유재란기 곽재우 장군의 화왕산성 진영에 합세한 밀양출신 의병세력으로서 주요 인물은 朴壽春, 金太虛, 孫起陽, 曹繼祥, 曹以復, 朴宗閔, 安璫, 宋應賢·宋傑 부자, 李英, 朴仁立 등을 들 수 있다.

밀양인으로 화왕산성에 입성하여 전투에 참가한 인물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경상좌도 방어사 곽재우장군 관할 하의 從事官·助防將·助戰將·掌書記 등 관군의 상·하급 지도부의 면모가 주로 창녕·영산·밀양의 순으로 인물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화왕산성에 입성한 밀양인물은 17명으로 앞의 표와 같았다. 이들이 주도한 의병운동과 사회적 활동을 살펴보자.

먼저 박수춘은 강화회담이 결렬되고 1597년 일본군이 재도발한 직후 곽재우가 방어사로서 창녕의 화왕산성을 고수하고 있을 때, 직접 격서를 띄워 의병을 모집하여 성으로 인솔해 들어가 군사를 합류하였다.⁶⁰⁾ 이로써 군대의 위용이 정연하고 성을 둘러싼 방어벽을 굳건히 이루었다. “왜군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政)가 군사를 이끌고 성 밑에 쇄도하였다가 정연한 대

창의할 때 남긴 시로 『詩曰 國沒身當沒 身存國亦存』이 있다. 『密陽郡誌』勳功條. 전쟁 후 知中樞府事에 올랐으나 입사하지 않았다. 선무원종공신 2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60) 『菊潭集』 권2, 信義檄.

<표 1> 정유재란기 밀양출신 화왕산성 입성 인물

번호	직책	성명	비고 (관직/공신녹권/팔공산회맹 참여)
1		曹繼祥	判官/2등 공신
2		金太虛	兵使, 蔚山郡守, 同知中樞府事/1등 공신/팔공산회맹
3	助防將	李 英*	密陽府使/1등 공신
4	掌書記	朴宗閔	
5	掌書記	曹以復	
6	掌書記	安 璿	문서 정리와 격문 작성
7		朴壽春	산성 수축, 무기 정비/팔공산회맹
8		宋應賢	部將/2등 공신
9		宋 傑	宋應賢의 아들, 羽林衛/2등 공신
10		蔣 珩	
11		孫起陽	新寧縣監/3등 공신/팔공산회맹
12		安國步	팔공산회맹
13		孫纘先(成)	팔공산회맹
14		許應吉	3등 공신
15		孫起誠	팔공산회맹
16		朴仁立	奉事/3등 공신
17		金彦良	3등 공신

* 李英은 밀양출신 인물은 아니지만 밀양부사로서 관군과 의병이 합세한 진영에 활약했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 『火旺入山同苦錄』(忘憂堂), 『密陽邑誌』(1832년), 『密陽鄉憲』, 『密州徵信錄』, 『倡義』, 『菊潭集』, 『笑庵先生文集』, 『柴巖實記』, 『火旺城同苦錄』(丁酉七月二十一日), 『양무공유사』

오와 삼엄한 劍戟을 보고는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江右로 퇴각하였다”⁶¹⁾고 하듯이, 산성을 중심으로 군사의 편제와 무기의 정비가 뛰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산성을 견고하게 수축하여 방어의 교두보로 활용한 이

61) 『菊潭集』 권3, 崇禎處士菊潭先生朴公行狀.

유는 계승방략의 분군법체제로 변한 이후 상대적으로 산성을 소홀히 하여 일본군의 요지 공격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박수춘은⁶²⁾ 孫起陽·安訊 등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향촌사회의 정비에 노력하였다. 그는 지방의 鄉風을 진작하고 인재를 번성케 하기 위해 고을 양반사족의 명부인 향안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鄉案重修序를 작성하였다.⁶³⁾ 향안의 중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鄉規의 서문을 집필하였다.⁶⁴⁾ 또한 고을민들과 함께 稷를 모으고 白鹿洞書院의 學規와 呂氏鄉約으로 조목을 삼아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여 선악을 분별하여 징벌과 권장을 하기도 하였다.⁶⁵⁾ 이처럼 그는 향촌사회의 질서회복에 크게 노력하였다.⁶⁶⁾

이어서 울산에서 창의한 김태허를 비롯하여 조계상·조이복·박종민 등도 광재우 군진영에서 함께 화왕산성을 수비하였다.⁶⁷⁾

한편 한강 정구 선생의 문하인 曹以復⁶⁸⁾은 평소 밀양의 사족인 晴暉 李

62) 그(1572~1652; 호는 菊潭, 자는 景老, 밀양인)의 집안은 대대로 府의 북쪽 甘川 위 삼포리(鎩浦里)에서 살았다. 왜란 후에는 부의 북쪽 南山 아래에 못을 파고 초가를 엮고는 호를 菊潭翁이라 하였다. 『菊潭集』 권2, 自評. 한강 정구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에도 장현광과 함께 창의했으며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63) 목적은 전쟁 후에 장기간 흩어졌던 인사들이 다시 모여 鄉黨의 대소사를 되찾고 鄉射의 옛 풍습을 다시 거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菊潭集』 권2, 鄉案重修序. 『密州徵信錄』 권6, 文選.

64) 『菊潭集』 권2, 鄉規序.

65) 『菊潭集』 권2, 讀書朱文公白鹿洞學規及呂氏鄉約示生徒文. 豊角洞規도 지었다. 『柴巖實記』 師友錄.

66) 『密陽郡誌』 倡義. 「忠行孝友 清直節義 皆見稱一世 丙亂後作詩曰 八山甘作 崇禎士處 世羞爲丙子民足跡 不出洞壑而終 號菊潭 士林立祠享之」. 『密陽鄉憲』 人物. 趙任道가 쓴 崇禎處士菊潭先生朴公行狀과 苞山 郭世權이 쓴 崇禎處士菊潭先生行錄이 있다. 후에 청도 南岡書院에 봉향되었다.

67) 『密陽鄉憲』 附州誌人物篇.

68) 字는 克休, 號는 慕醒齋. 寒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음직으로 別提를 지냈다. 부친은 正郎 曹光益으로 시조로부터 25세손이며, 퇴계문하에 있으면서 寒岡·東岡 등과 도의교였다. 증조부 孝淵은 함안군수를 지냈으며 退溪가 써 준 비갈문이 있다. 曹夏璋(30세손)의 문집인 『笑庵先生文集譯稿』 笑庵先生世系圖 참조. 조하위는 왜란이 끝나고 백여 년 후 고을의 향약기구를 새로이 정비하여 향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장동표, 앞의 논문, 266쪽.

慶承·畏齋 李厚慶⁶⁹⁾·磬漢 孫起陽 등과 함께 사상적인 교류를 하였다.⁷⁰⁾ 그는 방어사 관재우 막하에서 참전하면서 裴大維 등과 함께 掌書記 역을 분담하였다.⁷¹⁾ 임란 이후 17세기에 들어오면 조이복과 같은 창녕조씨 가문은 밀양지역의 향촌사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⁷²⁾ 박종민도 화왕산성에 입성하여 掌書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⁷³⁾

한편 五休堂 安訥의 동생인 安璫은 백의로서 의병을 자원하여 관재우 진영을 따랐는데, 나이는 어렸으나 글이 뛰어나 올리는 글과 격문은 선생이 모두 지었다고 한다.⁷⁴⁾ 또 밀양인으로 宋應賢과 宋傑 부자도 창의하여 망우당 진영에 합세해서 분전한 바 있었고,⁷⁵⁾ 정유재란 때 풍각에 머물고 있던 李英도 방어사 郭再祐 장군의 관군조직 하에서 助防將으로 활약하였

69) 李厚慶(1558~1630; 호는 畏齋)도 한강선생 문하에 있었고 선생의 인행록을 찬술하였다. 『先生三十五歲 春往省寒岡先生于通川』, 『四月間倭寇 歸自通川』, 『先生五十歲 春陪寒岡先生 同郭忘憂張旅軒 汎舟龍華山下』, 『先生六十五歲 撰寒岡先生言行錄』, 『畏齋集』 권1, 年譜. 昌樂道察訪·內瞻寺直長·陰城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畏齋集』 권1, 書에 孫起陽·趙任道 등과 교환한 서간이 실려 있다.

70) 『柴巖實記』 師友錄.

71) 郭再祐의 『火旺入城同苦錄』에 근거함. 『壬辰嶺南義兵史』(壬亂護國嶺南忠義壇保存會, 2001) 제5장 壬辰嶺南忠義錄의 350쪽; 金康植, 앞의 책, 2001의 142쪽 <정유재란기 郭再祐 관군의 조직>.

72) 朴丙鍊, 앞의 논문, 1995.

73) 그(1564~?. 호는 翠松堂. 자는 景休. 밀양인)는 밀양 吉谷에 거주했으며, 전쟁 후 同知 敦寧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을 추증받았다. 『壬辰嶺南義兵史』(壬亂護國嶺南忠義壇保存會) 제5장 壬辰嶺南忠義錄의 350쪽.

74) 안숙(1572~1624; 호는 樂園, 자는 待而)은 寒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經史를 많이 통독하였다. 그에 대한 영남지역 문인들의 칭강이 많았다. 1609년에 급제하여 司憲府監察·慶尙都事·刑曹正郎·草溪와 永川의 수령을 거쳤다. 李恒福은 그를 『安某心事 人莫能及 愚伏薦于朝曰 北黨之所 不汚南州之全名節也』이라 기렸다. 『柴巖實記』 師友錄. 『密陽鄉憲』 附州誌人物篇.

75) 송응현(호는 養吾堂, 자는 士希. 恩津人)과 아들 송길(호는 陽谷, 자는 冠玉)은 밀양 華岳山에 거주하였다. 부자 함께 창의하여 의병 수백 명을 倡集했으며, 망우당 진영과 합세하여 적군과 전투 도중에 부자가 동시에 순절하였다. 『壬辰嶺南義兵史』 제5장 壬辰嶺南忠義錄, 363쪽. 제향서원은 慶山 遠溪書院이다.

다.⁷⁶⁾ 밀양부사를 지내는 동안 그는 정유재란이 끝난 다음 해에 소실되었던 영남루에 초옥을 짓고 건물을 중수하였다.⁷⁷⁾ 또 蔣珩은 정유재란기 화왕산성의 창의 때 망우당의 격문에 즉시 수응하여 선봉에 섰으며 끝까지 복무하였다.⁷⁸⁾ 이들의 의병활동 결과 장형과 같은 아산장씨 가문은 안신과 같은 廣州安氏 가문과 함께 밀양지역의 유력한 사족가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⁷⁹⁾

(4) 울산·경주지역

1) 전쟁 초기

경주·울산 및 언양 일대에도 의병활동이 활발하였다.⁸⁰⁾ 특히 1592년 4월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1593년 4월까지 1년 동안 울산지역에서는 전투가 치열하였다. 이 지역에서 활약한 밀양출신의 대표적인 의병장은 襄武公 金太虛였다. 임란시기 의병장 중에서 문신이 많은데 비해 그는 1580년 26세 나이로 무과에 급제한 무신으로 玉浦萬戶로 첫 관직에 나갔다. 왜란 직

76) 『火旺入山同苦錄』(忘憂堂).

77) 『李英 宣祖丁酉 留駐豐角縣枝洞 己亥構草屋于嶺南樓 連簷三室舊址 名以憶昔』, 『密州徵信錄』 권1, 府官案. 1597년 5월부터 1600년 8월까지 밀양부사로 재임하였다. 『李英 丁酉五月 移拜來 庚子八月去 武科』, 『密陽府邑誌』(1832년) 官蹟.

78) 그(1577~1617; 자는 季珍, 호는 柴巖)는 牙山蔣氏의 17세손이며 蔣敬臣의 아들. 창의록 가운데 漁樵窩 金有富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일반 의병장과 달리 武科출신인 점이 주목되며 延日縣監을 지냈다. 밀양부의 서쪽 池洞에 있는 先龍에 장사를 치루고 洗心書堂에 제향하였다. 망우당 장군이 화왕산성에서 창의할 때 『冒鋒馳赴 積勞終始 觀機需應 長於時務』하였다. 『柴巖實記』 卷1, 家狀 및 行狀. 1586년 6월 부모로부터 효행으로 재산을 내리는 별급문건을 받았다. 내용은 노비 각 1명과 買得한 今勿員番 5마지기를 모두 허급하는 내용이다. 『柴巖實記』 卷1, 察訪公給給文.

79) 장동표, 앞의 논문, 250쪽.

80) 崔孝植, 『慶州府의 壬辰抗爭史』 경주시문화원, 1993; 禹仁秀, 『蔚山地域 壬亂義兵의 活動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31, 2003.

전 1590년에는 임지가 바뀌고 일정한 직무가 없는 散官으로 있었다.⁸¹⁾ 전쟁이 일어나자 먼저 울산지역에서 항전을 시작했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조정으로부터 전란 중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울산의 假郡守로 임명되었다. 전란 후에는 실제 군수로 임명(1602~1604)되었고 울산에 좌병영이 합속되면서 다시 경상좌도 병마사가 되었다.⁸²⁾

먼저 전쟁이 일어나자 임시 울산군수로 임명된 김태허는 울산에 살고 있던 前 현감 朴弘春을 西面將으로 삼아 동래에서 북상해 오는 적을 일정 부분 방어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어 前 奉事 全應忠으로 하여금 南面將으로 삼아 군대를 나누어 양산·기장지역의 적군에 맞서게 하였다. 또 徐仁忠을 水軍將으로 삼아 水路를 막게 하고 선박과 군기를 수선케 하는 등 군수 정비를 함으로써 서남쪽을 방어하였다. 동시에 그는 울산에서 직접 휘하의 병력을 거느리고 적군의 동향을 관망하면서 좌우로 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⁸³⁾

그 해 10월 機張과 阿爾浦 방면에서 일본군이 울산으로 진격해 오자 김태허의 지휘로 적선 2척을 격파하였다.⁸⁴⁾ 이 공로로 그는 奉正大夫 軍器寺正에 승진되고 정식 울산군수로 임명되었다.⁸⁵⁾ 울산에서 창의할 때 조카 金守訥은 군진에서 행할 6개조의 전술계책을 써서 종숙부인 김태허의 營中에 바쳤다.⁸⁶⁾ 이것이 軍宜六條인데 주요 내용은 士氣, 軍律, 軍糧, 兵器,

81) 김태허(1555~1620; 호는 博淵, 시호는 襄武公, 廣州人). 『양무공유사』 28~35쪽.

82) 『宣祖實錄』 권152, 선조 35년 7월 戊寅. 변광석, 「조선시대 울산·언양지역의 인물」, 『蔚山廣域市史』 2, 전통문화편, 2002. 참고로 그의 구체적인 활동과 행적에 대해서는 『廣州金氏史鑑』(廣州金氏宗親會)과 『密陽金石苑』(密陽文化院)의 「襄武公資憲大夫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扈衛大將博淵廣州金公之墓金太虛墓碣銘并序」 및 「神道碑銘并序」에 상세히 전하는 기록이 있다.

83) 『廣州金氏史鑑』 先祖事蹟, 138쪽.

84) 『양무공유사』 및 『미리벌의 얼』 96~97쪽.

85) 그의 조카 金守訥의 문집에 의하면, 밀양부사 박진이 적에게 위축되어 있을 때 그의 從叔父(김태허)가 나와서 포위망을 뚫고 함께 박진이 전후로 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울산-경주 사이 일대를 방어하는 데에도 김태허의 공이 많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九峯先生文集』 권2, 亂中雜錄.

要害地, 공격방법 등으로 의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비와 전략을 담고 있다.⁸⁷⁾ 여기에서 특히 주요 山城 등 要害지역의 방어나 야간 계탈라식 공격작전이 주목된다.⁸⁸⁾

이듬해 1593년(선조 26) 4월 김태허는 작전상 군대를 경주로 이동시킨 후 徐仁忠으로 하여금 1차로 利見臺 앞바다에서, 2차로 鳳吉里에서, 3차로 長鬐縣의 小鳳山 아래에서 연달아 격전하였다. 이 전투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적의 목을 7백여 급 베는 전과를 올렸고, 또 居昌館 앞바다와 牛旨嶺 전투에서 督捕大將 鄭起龍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적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⁸⁹⁾ 심지어 김태허와 연합한 의병세력은 일본군이 진격한 내륙 안동지방에까지 주둔하면서 적과 교전끝에 68과의 수급을 참획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⁹⁰⁾

한편 安訊은 울산전투에 가담하여 군비를 조달하는데 기여하였다.⁹¹⁾ 그에 대해서는 “白衣로 병사 김태허 막하에서 종군하여 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⁹²⁾ 이 공로로 軍器寺副正으로 제수받았으

86) 김수인(1563~1626; 호는 九峯, 자는 君愼)은 김태허의 종질이며 한강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生員에 합격하였다.

87) 6개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士氣를 격려한다. 2. 軍律을 신칙하여 밝힌다. 3. 양식을 조달 예비한다. 양식은 군인의 생명으로 삼는다. 4. 器械를 정밀하게 한다. 여러 가지 兵器를 정밀하게 하되, 火砲와 弓矢는 특히 많이 제조하여 둔다. 5. 험한 要害地를 응거하여 지킨다. 6. 오로지 야간 공격에 힘써서 우리의 多少와 虛實을 알지 못하게 한다. 『九峯先生文集』 권2, 亂中雜錄.

88) 그 후 김수인은 인조반정 때 조정에 상소문을 내고 도성에서 내려와 고향 밀양 남쪽의 산중에 집을 짓고 자족생활을 하였다. 그의 사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戒諸子曰 吾一藝 未成 而浪獲虛譽 悔恨無極 吾死 勿受人挽諫 勿哀收遺草 以誇耀耳目 丙寅卒』, 『柴巖實記』 師友錄. 한편 영창대군의 옥사사건과도 관련된 바 있었다. 후에 德陽洞에 봉향하였다. 『密陽郡誌』 生進.

89) 『密陽金石苑』, 밀양문화원, 146쪽. 襄武公 神道碑銘并序.

90) 『宣祖實錄』 권39, 선조 26년 6월 己丑.

91) 안신(1569~1648; 호는 五休堂, 자는 待之). 본관은 廣州. 贈職 參判 光紹의 아들로 府使 孫起陽의 문인이며 특히 小學과 心經 등의 경전을 탐구하였다. 『密陽鄉憲』 人物.

92) 그는 예학에 관심을 두어 선현들의 禮說을 수집하여 주를 붙였고 또 鄉案을 중수하였다.

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⁹³⁾

孫起陽도 李慶弘·李慶承 등과 함께 밀양 石骨寺에서⁹⁴⁾ 창의한 이후 울산 전투에도 동참하였고, 전란 후에는 울주판관과 군수(1602)를 잠깐 역임한 바 있었다.⁹⁵⁾ 漁樵窩 金有富도 초기에는 밀양에서 활약하다가 이어 경주·울산 진영의 의병에 합세하였고 전투에서 크게 승첩한 바 있다.⁹⁶⁾ 처음 일본군이 양산 內浦로부터 魚嶺을 넘어 밀양으로 침입하자 八風 계곡으로부터 추격하여 孝坪 지역에까지 걸쳐 전투하여 성과를 올렸다. 이 때 낙동강 왼쪽의 적을 섬멸한 수는 3백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 전과를 밀양부사 朴晉이 순찰사의 진영에 보고하였다. 이 때 김태허는 동래, 기장, 양산을 향거 토벌케 하였고, 김유부는 정병 3백명을 이끌고 黃山驛으로 나와 산간 숲속에서 매복작전으로 적을 견제하였다.⁹⁷⁾ 孝坪·黃山 전투를 두고 김유부에 대한 박진부사의 평가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⁹⁸⁾ 읍지에서도 그와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잘 나와 있다.⁹⁹⁾

그리고 1593년 봄 울산 태화강 전투에서는 경주·울산지역 의병장 李遇春·柳伯春·朴仁國이 전과를 크게 올렸고, 金自隱은 감포의 이견대에서 승

『密陽郡誌』 蔭仕.

93) 澗松 趙任道와 釣耕 蔣文益 등은 모두 그의 학문적 동지였다. 『柴巖實記』 師友錄.

94) 孫起陽이 석골사에서 지은 시가 있다. 『密州徵信錄』 권4, 詩選1, 石骨寺.

95) 『文 萬曆壬寅十一月仕 同年十二月遯』, 『蔚山府邑誌』(1832) 宦蹟條.

96) 金有富(1549~1621, 본관은 金寧, 호는 漁樵窩)는 天文·地理·兵陣法에 해박하였다. 『漁樵窩兩世三綱錄』 권2, 附錄 行狀; 『密陽郡誌』 勳功. 그의 가계와 조상의 행적에 관해서는 同, 권2, 附錄 家狀 및 金寧金氏世系分派圖 참조. 그의 논평에 관해서는 『密陽金石苑』의 김유부묘갈명명서 참조.

97) 『漁樵窩兩世三綱錄』 권2, 附錄 行狀 84~85쪽 및 家狀 112쪽.

98) 『兵使 朴晉이 글을 써서 칭찬하여 가로되, 어제 孝坪땅에서 승전하니 밀양이 힘입어 보 존되고, 오늘 黃山에서 승전하니 울산이 온전하게 되었고, 동쪽과 서쪽에서 그대가 긴 성곽이라 하였다.』, 『漁樵窩兩世三綱錄』 권1, 附錄 諸公贊述.

99) 『金有富 壬辰亂, 背負九十老母 投入戰中 一劔轉鬪 賊首無專 晝則身操刁斗 而行陣 夜則躬奉甘旨 而養親母子俱全 且獻鹹樹功事 聞旌閭 又載錄券 其子基南蘭生兄弟 當丙子之亂 同赴於雙嶺之戰力盡 并殞於矢石之間』, 『密陽府邑誌』(1832년) 人物.

전하였다.¹⁰⁰⁾ 이 때 김유부는 이우춘 등과 함께 영천으로 이동하여 蒼巖의 적군을 추격하고 팔공산에서 공격전을 전개하였다. 대구부의 관문인 청도와 밀양 사이에 일본군이 침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楡川에 가서 잔류하는 적군을 탐색하였다. 이로써 팔공산에 근거를 둔 일본군 부대의 형세가 고립되었고, 경주와 울산의 의병 진영이 승첩할 수 있었다.¹⁰¹⁾ 여기에는 의병장 김태허를 비롯한 경주·울산지역의 의병장의 주도에 의한 양진영의 연계 활동이 크게 기여하였다.

2) 정유재란기

조명연합군의 지휘부와 일본군 사이에 휴전회담이 전개되다가 결렬되고 1597년(선조 30) 7월 정유재란이 전개되었다. 김태허는 망우당 곽재우 장군과 함께 창녕 화왕산성에 입성하여 영남 내륙지역의 방어태세에 들어갔다. 정유재란이 격렬해지게 된 것은 1597년 12월 무렵 일본군이 잔류하고 있는 동남 해안선 지원기지를 둘러싸고 조명 연합군대의 대대적인 공략 준비부터였다. 그것은 바로 울산왜성(島山城)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으로 나타났다. 명군의 經理 楊鎬와 提督 麻貴가 6만의 대병력으로 울산의 도산성을 포위하여 공략하기 시작하였고, 이 때 양무공은 선봉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일본군의 도산성 外陣을 격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어 柳沙亭에서도 적군을 공격하였다.¹⁰²⁾ 울산성 전투는 한 달이 넘는 끈질긴 공방전 끝에 일본군이 패퇴하면서 끝나게 되었다.

이처럼 김태허는 적은 군대로 큰 승리를 거둔 점이 인정되어 조정에서는 諸軍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당상관으로 加資하는 등 포상하는 영예가 주어

100) 李有壽, 『蔚山の 壬辰丁酉倭亂史』, 『蔚山郷土史研究論叢』, 1996, 285~289쪽.

101) 『漁樵窩兩世三綱錄』 권2, 附錄 行狀 85~86쪽 및 家狀 114~115쪽. 도원수 權栗과 어사 韓浚謙의 기록에 의해 龍驤將軍으로 승진되었다. 同 권2, 附錄 行狀; 『密陽郡誌』 勳功條. 『宣武原從功臣錄券』에 의하면 그는 3등공신으로 임록되어 있다.

102) 『密陽金石苑』, 밀양문화원, 襄武公 墓碣銘并序 및 神道碑銘并序 참조.

졌다.¹⁰³⁾

전쟁이 끝난 후 김태허는 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입록되었다.¹⁰⁴⁾ 정부에서 김태허에 대하여 내린 관직으로 초기의 울산군수부터 말년의 오위도총부도총관까지의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는 일련의 敎旨와 『宣武原從功臣錄券』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한편 김태허가 사거하자 五休堂 安訊이 그를 위해 쓴 輓詞가 있다.¹⁰⁶⁾

(5) 기타 지역

임진항쟁에 있어서 전국적인 무대로 활약한 승병의 역할 중에서 밀양출신 四溟堂 惟政의 義僧軍 조직과 활동은 매우 컸다.¹⁰⁷⁾ 사명당이 금강산

103) 『宣祖實錄』 권38, 선조 26년 5월 丙子.

104) 양무공의 관직 이력과 주요 활동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울산군수에 임명된 이후 1594년(선조27)에 嘉善大夫 兼 助防將에 승진하였고, 이듬해에 嘉義大夫로 승진하여 同知中樞府事に 임명됨(『양무공유사』, 34~35쪽). 1602년(선조35)에 釜山營將을 거쳐 左兵使 兼 蔚山府使에 제수되었다(『兼府使 萬曆壬寅仕 甲辰遙』, 『蔚山府邑誌』(1832) 宣蹟條). 1604년(선조37) 宣武勳功을 책정하고 資憲大夫 都摠府都摠管으로 승진됨. 1605년에 다시 防禦使를 제수받음. 1606년 右兵使에 다시 제수됨. 이어 城堞을 수선하고 城의 望樓 관리를 신척하였다. 1611년에 또 防禦使 都摠管을 하였고, 1612년에 忠淸道兵使에 임명되었는데, 이듬해에 朴應犀의 誣告獄事に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마침내 都摠管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함. 1615년에 扈衛大將에 제배되었으나 또 사양하였다(先祖事蹟, 『廣州金氏史鑑』, 133~139쪽).

105) 이에 대해서는 『宣祖實錄』을 비롯하여 『양무공유사』의 자료와 『廣州金氏史鑑』의 141~143쪽 및 앞의 『密陽金石苑』 소개 김태허 묘갈명명서와 신도비명명서 참조.

106) 『殷夢初驚處 浮雲世事空 故園黃草露 新宅白楊風 穉子攀呼嚮 親朋恨道窮 幽明從此隔 殘月隱西峰』, 『九峯先生文集』 권3, 附錄 輓詞. 김태허는 임란 이후 1601년 중수된 鄉案에 가장 먼저 입록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安東營將 金守謙이나 조카 金守訥·金守訥의 입록은 좌절되었고 17세기 말에 김수인의 아들 부사 金之鍵과 손자 金淇만이 입록되었다. 장동표, 앞의 논문, 2005 참조.

107) 유정(1544~1610)은 풍천 任氏의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 자는 離幻, 호는 四溟堂, 松雲, 鏡峰이며, 밀양출신으로 贈職 判書 守成의 아들이다. 『密陽金石苑』 表忠碑. 『釋惟政 贈判書任守成之子 少出家遊漢北諸山 壬亂倡義 募兵以捍賊 說還兩王子…』, 『密陽鄉憲』

유점사에서 의승군 창의를 필요성을 인식한 이후 활동한 평양성 탈환전투, 진주성 수호시 경상도 함안·의령에서의 역할, 전쟁 후 被虜人 쇄환 등의 역할이 대표적이다.

임진왜란 시기에 전쟁국면의 큰 분수령이 되었던 평양성 전투에 있어서 사명당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⁰⁸⁾ 평양성 탈환 1차전투 때에는 사명당은 副將으로서 참모역을 맡아 평양 외곽에서 의승군을 지휘하였다. 사명당의 의승군은 일본군의 물자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총반격전에 대비하여 군량미를 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어 2차전투에서는 순안의 범홍사에 근거하면서 사실상 승군을 총지휘하게 되었고, 일본군의 병력이동과 군량의 보급을 차단함으로써 병력과 물자의 우세 속에서 조선군과 명군의 연합작전을 이끌어 내어 승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명당의 업적은 각 지역의 개별 전투에서 거둔 성과, 군량과 무기의 조달, 주요 요새의 산성 수축, 강화회담 주도 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¹⁰⁹⁾ 무엇보다도 사명당은 전국의 의승군을 조직해내고 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키는데 근간적 역할을 수행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 후에 외교적 협상능력을 발휘하여 일본으로부터 조선 피로인을 쇄환해 오는 데에 큰 역할을 수행한 점이 주목된다. 협상능력의 발휘는 단순히 일국의 고승으로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의병의 조직적인 수행능력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의 위상이 작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인물로서 밀양에 세거하다가 한양으로 이거했던 蔣敬臣은 省峴道 察訪으로 있다가, 정유재란기인 1598년 관동지역에

人物. 「僧惟政 掌樂正任孝坤之曾孫 贈判書守成子也 壬亂信義募兵以捍敵鋒 奉朝命入敵陣 還兩王子 又奉使日本 刷還被虜數千餘人 宣廟嘉其功 錄勳一等 文章有詩集」, 『密陽府邑誌』 人物.

108) 曹永建, 「임란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四溟堂의 의승병」; 張東杓, 「조선후기 密陽 表忠祠의 연혁과 이건분쟁」;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의 平壤城 전투와 四溟堂의 역할」, 『四溟堂과 그 時代』,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109) 金康植, 앞의 논문, 2000.

군량미 운반직책인 運餉使로 참전·활동하다가 삼척에서 전사하였다.¹¹⁰⁾ 그의 아들 蔣珩은 망우당의 격문에 수응·창의하여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한 바 있었다. 또다른 밀양출신 朴就文도 창의 기병했다가 임진강 전투에서 전사한 바 있었다.¹¹¹⁾

5. 맺 음 말

임진왜란의 장기간 전쟁동안 각도에서는 대소의 전투가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경상도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역이었으며, 동시에 의병의 활동이 빈번하게 전개되었다. 밀양은 일본군의 공격진로상 초기에 침입을 받은 곳으로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나, 이후 의병의 모집과 거병활동이 전개되면서 지역수호에 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의병의 창의동기는 지역민의 생활 근거지를 방어하기 위해 항쟁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시기에 각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주도한 세력은 대개 지역사회의 사족양반층이었고, 의병 구성원들은 대체로 양인농민층과 하층민들이었다. 사족양반들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서 토지에 긴박된 전호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고, 이러한 노동력을 일정 부분 조직화하여 의병부대에 합류시키기도 하였다. 밀양지역은 일찍이 농업생산력이 발달했던 곳으로서 토지소유와 향권주도 등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 재지사족층은

110) 『移居京城 宣教郎省峴道察訪 宣廟戊戌以運餉使 卒于三陟 墓楊州佛巖山子坐 配平山申氏 贈左贊成弘美女 墓雙墳 子瑗玟瑛贈工曹參議珩』, 『柴巖實記』世系圖.

111) 밀양출신 인물의 의병활동 내역에서 『宣武原從功臣錄券』에 임록된 인물은 모두 24명이 확인되었다. 1등공신은 朴晉·惟政·金太虛·孫仁甲·朴大秀·李英 등 6명, 2등공신은 金守謙·趙勳·曹繼祥·金克裕·宋應賢·宋傑·金克諧·李大鵬·朴夢龍 등 9명, 3등공신은 孫起陽·金天·朴守·金有富·朴遇春·朴彥福·許應吉·朴仁立·金彥良 등 9명이었다.

향촌지배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지역의병이 조직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또한 의병장들이 밀양과 인근 제지역 간에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족양반들의 학문적 문도관계와 혈연·지연적 유대관계가 작용하였다. 이는 의병세력을 조직화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리학문을 수학한 유생으로서 창의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문·무과에 급제한 관인으로서 의병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밀양지역에서도 학문적 관계나 인적·지연적 관계에 입각한 그러한 사례는 인근 지역과의 연대 하에서 활동한 여러 의병장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란 중 정부에서는 관군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 중이지만 의병들에게 제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부역·신역을 면제해 주거나 식량을 지급하거나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면천 내지 관직의 제수까지도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모병에 하층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밀양에서도 이러한 실태는 일정 부분 상정할 수 있겠다.

밀양출신 세력의 의병활동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의병주도 세력이 관군화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한 경우이다. 관군이 주도했거나 명의 원군이 합세한 진주성·울산성 전투를 비롯하여 전쟁 발발 직후부터 전개된 지역전투는 각지의 의병조직이 연합하여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역할이 되었다. 특히 의병장이 관군화되었을 때에 그러하였다. 광재우 장군이 이끄는 화왕산성 진영에 밀양출신 의병세력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즉 박수춘, 조이복, 박종민, 이영, 안숙, 조계상, 송응현·송걸 부자, 장형, 손기양, 안국보, 박인립 등이 조방장이나 장서기 및 이하 직임을 맡으며 활약하였다.

둘째, 의병항쟁이 치열한 인근 지역과 연합하여 활동한 경우이다. 김태허에 의한 울산·경주전투에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느 의

병장들이 무과출신임에 비해 김태허의 경우 무과출신임이 주목되었다. 다만 향촌지역의 소규모 의병활동은 주로 관군과의 연합전투보다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창의하는 과정에서 군량이나 병기 등 군수는 밀양지방 사족양반층의 주도하에 비교적 탄탄한 물적 기반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의병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의병조직의 기강유지에는 식량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군량의 모집에 재지사족층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넷째, 의병활동상 특유의 비정규전과 게릴라전으로 일본군에게 소규모 공격을 전개하여 타격을 입히는 경우이다. 이는 관군과의 연합전투보다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전투방식은 주요 산성 등 요해지역의 방어에 효과를 거두었다.

다섯째, 사명당의 주도 하에 전국 각지에서 전개된 의승군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평양성 탈환 2차 전투를 전후하여 의승군들의 군사정보 수집과 제공 및 일본군의 병력 동원이나 물자 보급로의 차단을 통하여 전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밀양부사 박진의 적의 정세에 대한 신속한 정보능력도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비록 관군의 활동이었지만 그 직후 의병세력의 조직과 활동에도 일정한 연관이 있었다. 이처럼 의병세력과 연합하여 관민 구분없이 활동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여섯째, 이들의 의병활동 영향으로 임란 이후 밀양지역의 향촌사회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밀양박씨·광주안씨·밀성손씨 등과 같은 유력한 사족가문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창의했던 의병인물들을 제향하기 위해 사당을 건립하는 노력들이 많이 확인되었다.¹¹²⁾

112) 밀양에는 사람의 본거지요 정신적 응결체인 樓亭齋舍가 유달리 많은 점이 밀양지역의 특색이다. 십여 년 전의 조사현황에 따르면 박수춘을 기리는 菊潭齋舍 등 모두 271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金錫禧·朴容淑·柳鐸一, 『密陽地方의 文獻資料 調査報告(1)』, 『韓國文化研究』 창간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88.

결국 밀양지역 의병활동의 의의는 주로 의병주도 세력이 사족양반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학문적·인적 유대관계 하에서 의병을 조직화하였고, 나아가 실제 전투에서는 교통·지리와 지형에 익숙한 이점을 활용하여 기습전과 유격전으로 전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그 결과 산성 등 요해지역을 방어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05. 9. 22, 심사완료일 : 2005. 11. 18)

주제어 : 임진왜란, 의병, 사족양반층, 경상도, 밀양

K C I

<ABSTRACT>

The Royal Troops Activities of *Yangban* from *Mirya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1592~1598)

Byun, Kwang-seok

The Objective of the Royal Troops Activities was to basically defend the residing areas of local people, even if it was to overcome the national-level disaster in the end. In the Japanese Invasion (1592~1598), the leading forces of the Royal Troops were primarily a stratum of local *Yangban*, while their members were mostly the ordinary peasantry. As a landowner, *Yangban* commanded a large number of subordinate peasants and organized somewhat them to form the Royal Troops.

In *Miryang* where the foundation of agricultural economy had been developed earlier, the control sphere of *Yangban* had been entrenched on that socioeconomic foundation. This is why the Royal Troops in *Miryang* Region were organized rapidly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The *Joseon* Government had endowed the Royal Troops with many benefits such as a supply of provisions, etc. in order to settle the problem of effective shortage.

It was the relations between masters and pupils, the kinship and the territorial relations of the Local *Sajok* by which the Royal Troops' commanders could carry out the military activities linking *Miryang* to its neighbouring regions. These factors had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the 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Royal Troop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1592~1598), the Royal Troops Activities of

Gyeongsang Province were most vigorous among their regional activities. There were many cases of local battles that the Royal Troops had joined into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including the battles of *Jinju* and *Ulsan* castles which the Royal Forces had taken the initiative or the Relief Army of *Ming*, China had joined forces. Also, the join of the Royal Troops had the advantage of doubling fighting powers.

The typical commanders of the Royal Troops from *Miryang* were *Park Suchoon*, *Jo Leebok*, *Park Jongmin*, *Lee Young*, *An Sook*, *Jo Gaesang*, *Song Unghyun*, *Jang Hyeong*, *Shon Kiyang*, *An Gukbo*, *Park Inrib*, etc. On the other hand, the Royal Troops' activities can be illustrated from the battles of *Ulsan-Gyeongju*. Their commander was exactly *Kim Taeheo*. However, many cases of smaller activities of the Royal Troops at countryside had been performed independently of the Royal Forces.

In addition, the military actions of the Monk Troops under the leadership of *Sameongdang*, a high priest from *Miryang*, played a great role in resisting against Japanese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Especially, the collections and offers of military informations and the breakages of strategic routes for effective movement and munition supply by the Monk Troops had helped to maximize fighting power before and after the second battle for retaking *Pyeongyang* Castle. Also, as for *Park Jin*, Governor of *Miryang* at that time, he had executed military capacities and carried out the prompt collections of information on enemy, so that he gained great outcomes strategically, even though he had failed initially to defend the *Miryang* Castle.

In conclusion, the Royal Troops activities of *Miryang* Region had been developed by the arrangements of functional organizations in that region and neighbouring districts. The foundation of the Royal Troops activities can be found from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Local *Sajok* who took the lead of those activities. Therefore, the Royal Troops had been organized by the material bases and the scholarly and personal relations of the Local

Sajok, and they had carried out effectively the surprise attacks and the guerrilla warfare taking advantage of being well acquainted with traffic routes and geographical features at actual fighting.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1592~1598), Royal Troops, The Local *Sajok*, Gyeongsang Province, *Miryang*

K C I